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6)용눈이오름·손자봉·둔지봉
'망자들의 뉘' 품은 오름의 절경

입력 : 2003. 11.14. 00:00:00



'오름의 실체를 모를 때는 그저 오름은 오름일 뿐이다. 그러나 오름의 실체를 알 때 그 오름은 최고의 생명력으로 다가온다.' 제주의 동쪽 끝마을 종달리는 오름 부자마을이다. 지미봉을 거슬러 두산봉, 은월봉, 용눈이오름, 손자봉, 동검은오름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형체의 오름을 두루 갖고 있으니 말이다. 10월 18일 용눈이오름과 손자봉에 이어 망자들의 이상향이라고 불리우는 한동 둔지봉을 찾았다.

△용눈이오름

소재지:구좌읍 종달리

해발:247.8m

비고:88m

둘레:2,685m

탐사단을 맞이하는 것은 용눈이오름 입구를 버티고 있는 무덤들이다. 망자들의 안식처가 아니더라도 등성이마다 왕릉을 닮은 새끼봉우리들이 봉긋봉긋하다. 형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남북으로 비스듬히 누워 마치 부챗살 모양으로 여러갈래로 등성이가 흘러내려 신비한 경관을 자아낸다. 굳이 오름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용눈이오름은 누구나 꼭 한번 찾고 싶은 명소가 됐다.

신영대 위원은 "마치 신비한 용이 변화와 조화를 일으키는 듯 하여 '용눈이'란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고 주석을 달았다. 종달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한 용이 형상으로나마 오름이 되어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는다.

용눈이오름은 용와악(龍臥岳), 용유악(龍游岳)으로 불린다. 오름의 형세가 용이 누워있는 형태, 용들이 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송당에서 수산쪽으로 통하는 16번 도로로 약 3km 지점에 있다. 오름의 산정부는 북동쪽의 오름 정상부를 중심으로 둥글게 휘며 세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용눈이오름은 전형적인 제주오름의 모습을 지녔다. 부드러운 잔디와 너울대는 연한 다갈색의 조개풀이 초지대 오름의 극치를 보여준다. 원로 식물학자인 이영노 박사가 이곳에서 관찰한 꽃향유를 '한라꽃향유'로 불렀다. 꽃향유는 시인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오르면 시인이 되게 한다. 오문필 위원은 "용눈이오름은 몇해전 까지만 해도 늦가을을 온통 꽃향유로 적셨으나 지금은 많이 밀려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분화구 바닥에서 한참을 보내고 온 강영제 위원은 "클로버, 목초가 남아 있어 과거 목초지로 개발하였던 흔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용눈이오름은 이미 생채기를 토해내고 있다. 사람의 발길이 지나간 자리는 어김없이 패이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용눈이오름이 못 다한 말을 '손지오름'이 받아서 정상에 꽃향유로 화답하듯 드러낸다고. 손자봉은 용눈이오름과 마주하고 있다. 손자봉을 길가에서 보면 오름 사면에 X자 모양으로 삼나무가 조림돼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탐사단이 찾은 때는 가을의 절정이다. 들녘 만추의 전령 역사의 은빛물결이 발길을 붙잡는다. 가을오름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오름은 그 모양이 한라산과 비슷해 한라산의 손자라는 뜻에서 손지오름이라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 손자봉이라 호칭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굳이 한라산을 닮지 않았다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름 중앙에 타원형 굽부리가 있고 사면은 평평한 등성이를 이루고 있다.

△손자봉

소재지:구좌읍 종달

해발:255.8m

비고:76m

둘레:2,251m

손자봉은 북쪽 기슭이 다랑쉬오름과 아끈다랑쉬를 마주하고, 북서쪽으로 돌오름과 둔지봉을 조망권에 두고 있다. 한라산 방향으로는 대맥을 따라 동검은오름이 코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하도공동목장이 있다.

△둔지봉

소재지:구좌읍 한동

해발:282.2m

비고:152m

둘레:2,567m

둔지봉과 그 주변은 무덤천국이다. 그래서 한동 사람들은 죽은 이의 거처인 '유택(幽宅)의 특별 시'를 연상케 한다고 했다. 구좌읍 공동묘지가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웃 마을인 행원, 월정, 김녕리 사람들도 이 곳 명당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구좌읍 한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름을 넘어 가까운 곳에 덕천리가 있다. 둔지봉은 해안에서 5km정도 떨어져 있다.

둔지(屯地)라는 명칭은 제주어로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마소가 많이 모여 떼를 이룬 것을 '둔짓다'라고 말하는데, '둔지'가 많은 이 곳 지형의 특성을 따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진다. 둔지봉은 말떼를 거느린 둔마의 우두머리 형상이라고도 한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새끼오름들을 말떼에 비유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차연 위원은 "용암류의 활동이나 또는 지진 등의 원인으로 분석구의 일부(또는 전체)가 파괴되어 낮고 많은 '구릉'상의 지형을 형성하는 지층을 화산성암설사태층이라 한다"고 했다. 화구가 트여진 방향으로 둔지봉 전면에 펼쳐진 낮은 구릉들이 바로 알오름 또는 새끼오름이라 불리는 것이다.

탐사단은 작은 구릉들과 망자들의 안식처를 품에 안고 은백의 억새꽃들로 뒤덮힌 서북쪽 둔지봉의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김녕 묘산봉과 멀리 제주시 별도봉과 사라봉까지 시야에 잡힌다. 맑게 개인 날 이곳에 오르면 한라산 동부지역 오름만 줄잡아 80여개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조망이 압권이다.

[전문가 리포트]亡者들의 이상향-둔지악은 瑞氣를 품은 오름

둔지악의 정상에 서면 오름의 형상이 서남쪽에 꼬리를 내밀고 북으로 몸을 일으켜 북동으로 머리를 힘차게 돌려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북사면으로 이어지면서 동으로 머리를 돌린 둔지악은 동남과 서남쪽 곳곳에 妙穴(묘혈)을 간직하며 문필의 형상을 띠며 힘차게 머리를 들었다.

둔지악은 특히 보는 방위와 위치에 따라 풍수에서 말하는 物形(물형)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物形論(물형론)은 28宿에 배속되어 있는 상징적인 동물의 형상을 물형에 대입하여 응용한 것으로서, 지리의 이치인 땅의 性情(성정)을 파악하는 데 참고로 하는 것이다.

둔지봉의 서남을 의지하여 羅經(나경=패철)의 이법상 申坐(신좌:서쪽에 머리를 둠)로 들어서면 장수가 앉아있는 형국인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이 되며 3~4곳의 혈처를 내고 있다.

둔지악의 북쪽을 좌로 하고 남향을 하면 금비녀를 땅에 드리운 형상인 '수지금차형(垂地金釵形)'이요, 군막아래 귀인이 있는 형국으로 '장하귀인격(帳下貴人格)'이기도 하다.

둔지악의 정상 아래 三穴의 妙處가 있으니, 서남(未坤坐)을 의지하고 동북을 바라보며 향하면

자손들이 크게 흥성하고 후손이 끊기지 않아 대대손손 부귀를 이루는 連孫致富地(연손치부지)가 된다.

둔지악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삼각의 형태로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 올라간 木形(목형)의 기세로 문필봉의 산세를 드러내고 있다. 멀리서 가까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산형은 교묘히 변화를 하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필봉의 기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리의 성정은 곧고 淸秀(청수)하며 대체로 귀한 것을 주재하는 기운이 있다.

둔지악의 성정은 곧고 평지에서 불쑥 솟아오른 형국으로 둔지봉의 중간 아래부분 즉, 북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지 용이 많이 퍼지는 형상으로 기슭의 아래로 낮고 높은 작은 구릉들이 고저기복(높고 낮게 울퉁불퉁하며 힘있게 내려가는 모습)하고 좌곡우곡(좌우로 구불구불 뱀이 기어가듯 휘감으며 이어지는 형상)하며 구불구불 휘감으며 水口(수구)가 형성되고 물이 휘감아 흐르며 경계를 이루는 곳곳에 穴處(혈처)를 이루는 좋은 묘터로 땅의 색깔이 양명하고 자색의 瑞氣(상서로운 기운)를 띠는 곳이다.

세월의 바람을 맞으며 의연히 서 있는 둔지악의 자태가 자못 당당하다. 그 둔지봉의 기세는 세월이 지날수록 주변 마을에 발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오랜 세월동안 바다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침묵을 깨고 둔지봉의 기운을 따라 부와 귀를 발현할 소중한 생명의 땅으로 한층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신영대 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지리)>

[전문가 리포트]오름의 초원, 해송군락으로 식생 급속 변화

제주도 사람들은 오름의 식생하면 소위 민등산에 가까운 초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과거부터 방목이나 농경지 확보를 위한 화입, 예초(刈草) 등으로 이루어진 오름의 식생구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기후나 토양환경에 의해 식생천이(植生遷移)가 이루어진 안정된 군집(群集)이 아니라 인간이나 가축에 의해 유지되어온 불안정한 인위적 아극상(亞極上) 식생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인위적 간섭이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식생구조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용눈이오름, 손자봉과 둔지봉의 식생구조를 보면 현재 제주도내 초원으로 이루어진 오름들이 인간의 간섭이 없을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는 단계적인 식생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용눈이오름은 수크령, 조개풀, 참억새 등 벼과식물이 사면부에 주로 분포하고, 정상일대에는 잔디나 목초의 일종인 오리새가 초원을 이루고 있으며 물매화, 미역취 등 식물의 종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자봉은 'X'자 모양의 삼나무 조림지를 제외하고는 참억새군락이 사면부에 발달되었으며 정상일대에는 수크령, 잔디, 참억새, 조개풀 등이 부분적으로 우점하는 초원을 이루고 있고 어린 해송이 일부 이입되는 식생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둔지봉은 북사면의 해송이 주종을 이루는 숲을 제외하고는 삼나무, 측백나무 등의 조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림지 주변은 참억새군락에 짙레, 보리수나무, 쥐똥나무, 청미래덩굴 등의 목본성 식물이 발달되고 있다.

이들 오름을 비교할 때 용눈이오름은 지속적인 방목에 의하여 과거부터 유지되어왔던 초지의 식생구조를 갖고 있으나 손자봉은 인위적 간섭이 적어지면서 참억새군락의 발달 등 초지대 식생천이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위적 간섭이 거의 없는 둔지봉은 해송군락의 확장, 목본류의 발달 등 천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림에 의해 초원의 식생구조가 변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오름에 방목이나 화입과 같은 인위적 간섭이 적어질 경우 오랫동안 제주도의 오름 경관으로 자리했던 초원은 해송군락 등의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의 조림은 초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오름의 경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오름이 갖는 생물 종 및 생태계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오름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검토될 때이다.

<고정균 위원(한라산연구소 팀장 이학박사/ 식물생태생리)>

[알림]이번주 탐사는 쉽니다

이번주(토/11월 15일) 한라대맥 오름탐사는 본사가 주최하는 제1회 감귤사랑 한라마라톤 행사로 인해 쉽니다.

독자들과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주(11월 21일) 부터는 탐사가 정상 진행되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